

# 북한 관료의 일상과 체제변화: ‘지배 공간’의 변형과 기억의 실천\*

김중욱(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연구교수)

## 1. 들어가며: 일상생활세계의 창조성

일상을 다루는 것은 결국 일상성(그리고 현대성)을 생산하는 사회,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다. 겉보기에 무의미한 듯한 사실들 속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잡아내고, 그 사실들을 잘 정돈함으로써 이 사회의 정의를 내리고, 또 이 사회의 변화와 전망을 정의해야만 한다.<sup>1)</sup>

북한의 일상생활세계를 연구하는 것은 반복적 실천의 재현이 새로운 관계와 구조를 생성하고, 그 반복과 재생산의 과정에서 중요한 특

---

\* 이 논문은 2007년 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KRF-2007-322-B00006). 그리고 이 논문을 심사한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심사자들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순전히 필자의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양해를 구한다.

1)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서울: 기파랑, 2005), 84~85쪽.

징을 추출함으로써 변화의 동학과 다가올 미래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고난의 행군’ 이후 변화되고 있는 북한사회의 일상생활세계를 추적함으로써 변화의 동학을 분석하고 체제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특히 이 글은 관료들이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일상생활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sup>2)</sup>

무수한 행위자들의 행위 연속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조에 침투하고, 구조를 요동치게 하며, 공간을 변화시키고, 기억을 재생케 한다. 재생된 기억은 다시 행위로 갱신되어 실행되고 이러한 반복적 행위는 다시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반복적 요동은 일상생활의 시공간에서 발생하고 축적된다. 따라서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해석을 통해 사회 또는 국가 변화의 실체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일상생활세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미시사적 전후 맥락의 과정과 거시사의 메타 이야기 간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따라서 일상 연구를 단지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을 통해 추적하는 것인 동시에 실제의 상위정치, 거대구조, 거대한 역사적 힘과 별개라고 믿는 것도 잘못된 접근이다.<sup>4)</sup> 일상생활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가 어떻게 사회적 구조와 연계되는지에 대한 관계

---

2) 예를 들면 비일상적 상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고난의 행군’은 관료들에게 일상의 충격이었다. 이 기간에 전개된 생존 투쟁과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억이 이후 관료들의 일상적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비일상적 경험의 축적은 다시 일상에서 주요한 행위실천과 관계구성 변화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3) Paul Steege, Andrew Stuart Bergerson, Maureen Healy and Pamela E. Sett,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A Second Chapter,”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80(June 2008), p.362.

4) *Ibid.*, p.367.

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차원에서 ‘습관’의 체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일상생활세계에서 획득된 것으로 기억에 축적되고 실천으로 나타난다. 즉, 프락시스(praxis)의 실제적 중심, 이성적 핵은 일상생활 안에 자리 잡고 있다.<sup>5)</sup>

습관은 규범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이며 무의식적으로 몸에 각인된다. 습관이 몸에 체화됨으로써 더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자아에 일관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날마다, 주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 즉 언제 어디서 먹고, 씻고, 움직이고, 일하고, 놀지는 문화와 정체성의 관계를 깊게 이해하게 해주며 ‘상식’이라는 영역을 구성해낸다. 그리고 습관은 문화적 거래나 다른 사람들을 모방함으로써 변화하며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부화되고 뿌리박힌다.<sup>6)</sup>

일상에서 체화된 습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문화를 통해 변화되며, 그 변화의 축적을 통해 다시 내부화되고 체화된다. 즉, 사람들이 유사한 습관과 전제, 그리고 일상을 공유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공유된 방식으로 인정하며 상호주관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그 결과는 제도화로 나타난다.<sup>7)</sup> 이와 같은 복잡한 변화의 과정이 발생하는 일상은 그 자체 무한한 창조성을 내재하고 있는 공간이다. 즉, 일상 속에서 다양한 결합과 조합, 분리 등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

5)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89쪽.

6) 팀 에텐서,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정체성』, 박성일 옮김(서울: 이후, 2009), 221쪽.

7) R. Jeckins, *National Identity*(London: Routledge, 1996), p.128. Paul Steege, Andrew Stuart Bergerson, Maureen Healy and Pamela E. Sett,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A Second Chapter,” p.58에서 재인용.

창조의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일상의 축적을 통해 습관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정착되는 원리와 유사하게 습관을 파괴하고 제도를 변화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8)</sup>

따라서 습관의 변화는 일상의 변화를 추적하는 요소가 된다. 익숙한 장소와 제도가 사라지거나 위협받고, 새롭고 이질적인 장소가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불안해하며 일상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습관도 변화한다. 이처럼 일상의 시공간은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충돌과 변화의 근원이며 새로운 창조성을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은 공간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결합되고 분절되고 충돌하는 지점이다.

…… 일상의 비참함 …… 지루한 임무들, 모욕적인 일들, 노동계급의 삶, 일상성에 짓눌리는 여성들의 삶 등이 그것이다. …… 궁핍의 존속과 희소성의 연장이다. 즉, 경제·절제·박탈·억압·욕망 및 비천한 인생의 영역이다. …… 일상의 위대성, 즉 지속성이다. 삶은 땅 위에 뿌리를 박고 영원히 지속된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육체·공간·시간·욕망 등의 전유(專有)이다. …… 반복적 몸짓에서부터 실천 - 감각적 세계를 창조하는 것도 있다. 욕구와 유용성의 만남도 있고, 훨씬 드물기는 하지만 한결 강력한 쾌락도 있다.<sup>9)</sup>

---

8) P. Harrison, "Making sense: embodiment and the sensibilities of the everyda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8(2000), p.502. Paul Steege, Andrew Stuart Bergerson, Maureen Healy and Pamela E. Sett,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A Second Chapter," p.66에서 재인용.

9)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95쪽.

일상은 그 현실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무한한 지속성 속에서 창조성을 나타내는 주제이다. 일상의 비참함 속에서도 인간은 공간과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의 욕망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위해 일상을 전유한다. 그 반복적 실천의 과정에서 창조성과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드러난다. ‘고난의 행군’은 일상의 비참함을 상징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지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담론으로서 ‘고난의 행군’은 실제 현장을 살아가는 주민과 관료들에게는 비참함의 현실이었다. 동시에 그 비참함의 시공간을 극복하기 위한 주민과 관료들의 다양한 생존을 위한 행위들이 전개된 과정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글은 관료들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체험한 기억과 이 기억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고, 기억의 실천 과정에서 전개된 ‘지배 공간’과 ‘저항 공간’을 둘러싼 충돌 과정을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이를 통해 기억의 실천과 공간의 변형이 북한 사회의 일상생활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비참함 속에서 전개되는 관료와 주민들의 일상의 창조성을 추적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관료 일상의 변화 특징을 추출하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세계의 변화와 체제전환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을 모색하며 마무리할 것이다.<sup>10)</sup>

10)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유화 조치를 통해 국가에 모든 소유권이 집중되었다. 즉, 국유화 조치는 전 국민을 물적 행위수단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관료체제의 전면화를 뜻한다. 베버는 “사적 자본주의의 폐지는 국유화되거나 사회화된 기업의 최고경영이 관료정치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Max Weber,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eds.), *Economy and Society*(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p.1,402. 따라서 전 국민은 지배자를 제외하고 봉급 받는 관료와 인노동자로, 전 국가의 행정 및 노동시스템은 위계적 관료체제로 재편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배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앙당의 경우 책임지도원급 이상, 지방당의 경우 부장급 이상, 초급당위원회의 경우 초급당 비서급 이상, 국가 행정기관의 경우는 책임지도원급 이상을 ‘간부’로 규정할

## 2. 북한 사회의 기억과 공간의 변화

### 1) 심성세계의 변화: ‘집단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역사가 지배 권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면 기억은 억압되고 잊힌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기억은 “한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현재화하는 정신적(심리적) 현상”을 의미한다.<sup>12)</sup> 따라서 기억은 사실의 수동적 창고가 아니라 의미 창조의 실제적인 과정이다.<sup>13)</sup> 즉, 개인의 기억은 과거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다. 따라서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특정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며, 이 과정을 통해 자신들을 여타 집단과 구별 짓는 특수한 정체성인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을 형성한다.<sup>14)</sup>

알박스(Maurice Halbachs)에 의하면 집단기억은 개인적 기억도, 보편적인 의미의 ‘역사’도 아니며, 각각의 집단이 상상적 공간 이미지를

---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각종 공간기구(군, 보위부, 인민보안성 등)의 간부들이 포함된다. 또한 당원들의 경우도 간부로 진급할 수 있는 ‘예비간부’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관료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11) 기억은 ‘기억하기와 잊기의 변증법으로 시작되고’, ‘조작과 전유에 의해 변화되기 쉬우며’, ‘오랫동안 잠잠하다가 주기적으로 재생되는’ 영구적 진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면, 역사는 ‘과거의 재현과 재구성’이며 ‘보편적 권위를 요청’하고, ‘단지 상대적으로만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Pierre Nora,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emoire,” *Representation*, 26(Spring 1989), pp.8~9.
- 12)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서울: 휴머니스트, 2005), 39쪽.
- 13) A. Portelli, *The Death of Luigi Trasyulli and Other Stories: Form and Meaning in Oral History*(NY: State University Press of New York, 1991), p.52. J. P. Linstroth, “History, Traditional, and Memory among the Basques,” *History and Antbropology*, Vol.13(2002), p.172에서 재인용.
- 14)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48~49쪽.

매개로 하여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의식(또는 심성)’이라고 규정한다.<sup>15)</sup> 집단기억의 형성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집단과의 연관이다. 기억은 공간들을 연상함으로써 그 공간과 연관된 사물들을 연속적으로 회생해내는 것이며, 그 형상이 우리 의식 속에서 실재화되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결속이 필요하며, 사회집단은 동일한 기억을 공유하고 그 기억을 통해 자기 집단에 대한 귀속감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억공동체의 성격을 띤다.<sup>16)</sup>

기억공동체가 특정 시기에 겪은 ‘체험’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의 통일성으로 진화된다. 특히 고통스러운 체험에 대한 기억은 무의식으로 추방·억압되지만 사라지지 않고 ‘상흔’으로 남아 끊임 없이 고통을 가한다.<sup>17)</sup> 따라서 ‘고난의 행군’ 기간에 겪은 고통스러운 집단경험은 상흔으로 남아 집단에 내재한다. 그 조건 속에서 지배집단의 전략이 현실 상황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기억공동체의 집단 정체성을 억누르는 통합을 목표로 한 역사와 긴장 상태에 빠질 때, ‘대항기억(counter-memory)’이 발생한다. 즉, “‘역사’가 기성질서를 변호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략할 때, 여타의 기억들은 이에 ‘대항’하는 성격을 띠게 된다. 대항기억의 입장에 서면 전혀 색다른 과거의 모습이 펼쳐진다. 이제 소수 엘리트가 이끌어가는 역사에서 범인들의 소박한 꿈과 애환을 담은 준(準)역사”가 전개되는 것이다.<sup>18)</sup>

집단기억과 대항기억을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최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준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는 국가

15) 위의 책, 50쪽.

16)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제85집(2003), 164~165쪽.

17)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69쪽.

18) 위의 책, 93~94쪽.

가 인민의 삶과 복지를 전담한다는 역사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그러나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면서 역사적 담론은 일상에서 철저히 붕괴했다. 생존을 위한 일상의 고단함과 죽음의 공포와의 항상적 대면은 관료와 주민들에게 ‘새로운’ 집단기억을 형성하고 있다.<sup>20)</sup> 또한 지배명령을 실행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대항기억들이 생성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기억들은 정부의 공식담론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면서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의 관료와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 기간 이전의 기억은 ‘돌아갈 수 없는 희망의 시간’에 대한 회상이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시장과 관료 연줄망을 통한 생존과 이익 추구는 지속적으로 권력과 충돌하지만 생존의 출구로서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간’으로 체험되고 있다.

지배 권력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지만, 그것의 실행 불가능성을 현실에서 인식하고 있는 관료와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국가

19)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2008.9.5)를 노동신문에 게재했다. 그 내용 일부를 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력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건설되고 강화 발전되었으며 세기적으로 억압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20) 알박스는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기억을 구별했다. 사회적 기억은 개인적으로 체험된 것의 기억 그리고 경험된 것의 부분들인 집단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집단을 통해 경험되고 그 다음 기억된다. Daniel Levy and Natan Sznajder, “Memory Unbound: The Holocaust and the Formation of Cosmopolitan Memor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5(1, 2002), p.91. 따라서 국가가 규정하는 권력에 의해 재현되고 재구성된 역사적 기억과 다르게 특정 집단이 직접 경험한 현실은 그 집단에게 새로운 사회적 기억으로 각인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와 강권은 시장과 관료 연출망을 통한 생존세계와 치열한 갈등과 착종(錯綜)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새로운 국가 정체성이 산출되는 과정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21)</sup> 이러한 기억과 현실의 상호작용은 관료와 주민에게 새로운 심성세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 사회의 준(準)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 2) 공간의 변형: '지배 공간'과 '저항 공간'의 충돌

우리는 공간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 그 공간에서 다양한 행위들이 전개되고 다시 공간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공간화'된다는 것은 사물의 물리적 배치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일상의 공간적 배치 형태이며, 역사적 공간에 인간의 사회 공간적 상상력과 전망이 부가된 개념이다.<sup>22)</sup> 이 공간은 지배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생산하고 재생산되는 '지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맞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이 벌어지는 '저항 공간'이기도 하다. 공간은 생산·소비·교환이 작동하는 곳이며, 이와 함께 정치적 도구, 계급투쟁이 각인되는 사회적 관계의 영역이 형성되는 장소이며, 물리적 공간이 사회경제적·문화적 체제로 중재되는 장소이기도 하다.<sup>23)</sup>

---

21) 모든 즉각적 정보와 과거의 기억은 현재에서 삶의 일상성에서 새롭게 조합되는 것이다. Paul Steege, Andrew Stuart Bergerson, Maureen Healy and Pamela E. Sett,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A Second Chapter," p.365.

22)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역사 이론적 '전유'의 모색," 『역사와 경계』, 58권(2006), 298쪽.

23) Henri Lefebvre, *La production de l'espace*(Anthropos, 4e éd. 2000), p.68. 위의 글, 304쪽에서 재인용.

따라서 공간은 국가 차원의 생산과 교환이 발생하고 소비 방식에 대한 국가적 제약이 발생하는 곳이다. 동시에 인민들의 다양한 방식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지배에 저항하는 정치적 도구가 개발되고 이 도구를 통한 투쟁이 전개되는 공간이다. 또한 공간에서 지배와 인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고 변화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공간에서는 공간의 통제와 활용을 둘러싼 다양한 실천이 지속된다.

이런 차원에서 르페브르의 ‘체험 공간(l'espace vécu)’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체험 공간에서 체험은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권력과 폭력의 상징 등을 수동적으로 체험하는 억압받는 측면과 함께, 그 수동적 강제 속에서 발생한 규범에서 벗어나 공간의 표상들에 자발적으로 저항하는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이 체험 공간은 쉽없이 동요하는 ‘표상 공간’이다. 이 체험 공간에서는 일상적 삶 그리고 권력과 지식의 결합에 의한 지배적 구조화의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공간이다. 동시에 저항과 전복을 통해 일상의 소외를 극복하는 능동적 주체의 공간이며 차이가 실현되는 공간이다.<sup>24)</sup>

따라서 이 체험 공간은 지배 권력이 부과하는 기존전략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횡단하고 때로는 전복의 전략이 가시화되는 저항의 정치도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공간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에게 공히 도구적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우월한 위치는 공권력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지배집단에 있다. 그 불균형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체험 공간은 즉각적으로 ‘대안 공간’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대안 공간은 “제도적 권력의 공간 담론을 변혁하는 은밀한 지하 운

---

24) 위의 글, 307~308쪽.

동적 실천을 수행하고, 지배와 강제된 사회적 공간의 규범 밖에서 새로운 공간적 존재와 실천 양식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sup>25)</sup> 동일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우회하고 횡단하고 건너뛰는 방식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간에서 이러한 저항의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 개입이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위계와 통제 그리고 동일화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장소의 통제, 엄격한 위계, 전체와 분리된 부분들의 동종성을 보장한다. 그 결과 공간은 행정적 통제와 규제의 공간이 된다.”<sup>26)</sup>

따라서 이 공간은 현재적으로 지배 공간이지만 항상적으로 민중적 점유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어느 순간 민중적 점유가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안 공간이다. 특히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한 사회주의에서 공간은 철저하게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위계적으로 구성되고, 행정적으로 구획되었다. 그만큼 균열 속도가 빨라지고 저항 행위가 강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수령’을 상징으로 위계적 관계망에 의해 주도된 지배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역사 속에서 지배 공간 내의 다양한 저항과 동조의 행위들이 교차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최근 도시는 과거 사회주의 북한의 생산력과 ‘수령’의 권력을 상징하던 공간에서 서서히 시장과 화폐의 개입에 의해 새로운 관계망이 구성되면서 중층적으로 충돌·변화되는 공간이다. 이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그 결과 저항 공간을 통한 대안 공간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지배에 의해 재구성된 지배 공간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

25) 위의 글, 308쪽.

26) Henri Lefebvre, *De l'État-VI: Les contradictions de l'État moderne, La dialectique de l'état*(UGÉ, 1978), p.291. 위의 글, 313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미 북한의 도시공간에서는 심각한 변동이 발생하고 있고 도시공간이 요동치는 시간에 있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특히 체제와 관련해 지배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모순에 대항해 비주류들의 협력과 연대가 성사될 것인지, 이 과정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실천행위들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발전할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다양하고 풍부한 실천행위는 확일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공간으로의 진화를 의미하며 대안 공간의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 3. 북한 일상생활세계의 요동: 공간과 기억의 결합

지배 권력은 공간을 장악하고 공간에 편재(遍在)하는 감시의 시선과 공간의 구획, 의도된 계산에 따른 시간의 분할과 신체의 규격화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공간 내의 위계적 편제(編制)의 강화와 이탈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복종하고 훈육된 인구를 주조하기 위한 전략이다.<sup>27)</sup>

그러나 이러한 지배 전략에 맞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한 전술이 지배 공간에서 벌어진다.<sup>28)</sup> 따라서 전술은 고유한 장소가 부재한

---

27)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박흥규 옮김(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4), 231~257쪽.

28) 세르토(Michel de Certeau)가 말하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한 전술은 ‘일상의 실천에 정치적 자원을 제공하고’, ‘잠재적 전복능력이 약자를 강자로 전환하는 기술’이며, 적대자의 시간과 공간, 기술 관료정적 구성 공간을 이용하되,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통과하며 흔적을 남기는 ‘모험적 편력의 궤적’이며, 우연한 돌연변이 집중이고 예측 불가능한 계산을 의미한다. 장세룡, “푸코와 세르토: 권력과 신비,” 『계명사학』, 16권(2005), 133쪽.

약자가 결정하는 계산된 행위이고 술수이며 책략이다.<sup>29)</sup> 지배 권력이 권력의 물리적 토대인 공간을 장기적으로 생성한다면, 약자들의 전술은 단기간에 손쉽게 ‘세균 같은 실천’으로 이 장소들을 침식하는 공간을 창출한다.<sup>30)</sup>

전술이 빠르게 전개되고 사라지는 이러한 반복은 저항 공간을 부분적으로 획득하는 과정으로 발전한다. 이것은 공간의 새로운 생성이며, 그 생성의 근원은 시간과 결합된다. 즉, 반복적 행위와 구조의 변동이 결합해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는 것이다.

북한 사회는 지속적인 하락 국면 속에서 새로운 기억들이 창출되었다. 그 근본적 원인은 사회주의 자체의 모순이라는 거대한 구조이지만, 핵심적 계기는 ‘고난의 행군’이었다. 이것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뺏속까지 각인된 약자들의 기억으로 전승되었다. 생존을 위한 분투는 새로운 공간의 창출로 연결되었다. 그것은 시장이라는 새로운 교환의 공간이며, 관료적 권한과 시장의 결합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형’ 관료 연출망의 구성이었다.

과거 북한의 관료와 인민의 삶은 지배 권력의 시공간적 장악을 통해 복속되었다.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위한 노동규율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개인의 삶을 규정했다. 출근시간, 아침조회, 작업시간, 점심시간, 오후 작업, 생활총화의 반복적 흐름과 집에서 작업장으로의 이동

---

29) 많은 일상의 실천(걷기, 읽기, 이동, 쇼핑, 요리하기 등)은 특성상 전술적이다.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은 ‘실행방법’이 있다. 즉, ‘강자’를 둘러싼 ‘약자’의 승리, 현명한 트릭, 사물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인지, ‘사냥꾼의 교환함’, 책략, 다양한 속임수, 즐거운 발견, 호전적인 동시에 시적인 것이다.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p.29~42.

30) 장세룡, “푸코와 세르트: 권력과 신비,” 133~134쪽.

이외에는 통제하는 공간 분리를 통한 지배의 규율로 주민들을 복속시켰다. 관료와 주민들은 ‘째째이’ 시간과 ‘자투리’ 공간에서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상상과 공작활동을 통해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면서 시장은 약자들에게 생존의 공간이며 대안 공간으로 각인되었다. 시장 없는 생존은 불가능의 영역이었고 시장을 통한 새로운 관계망의 형성은 새로운 기억들을 만들어갔다. 이렇듯 공간과 기억은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일상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인이 된다.<sup>31)</sup>

최근 북한 내부에서 전개되는 일상적 저항은 시장과 직업장을 통해 분출되고 있다. 생존공간인 시장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시책은 장마당마다 분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sup>32)</sup> 분배 없는 노동을 강제하는 직업장

---

31) 1920년대 베를린의 지하철역은 사회적 모임 지점, 지역의 경계, 경제적 교차점, 격렬한 정치적 분쟁지대, 젊은이들의 외부와의 통로, 국가 당국자 또는 통근하는 사람들의 입구점이 되었다. Pamela E. Swett, “Political Network, Rail Network: Public Transportation and Neighbourhood Radicalism in Weimar Berlin,” in Ralf Roth and Marie-Noëlle Polino(eds.), *The City and the Railway in Europe*(Aldershot, 2003), pp.221 ~ 236. Paul Steege, Andrew Stuart Bergerson, Maureen Healy and Pamela E. Swett,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A Second Chapter,” p.364에서 재인용. 즉, 북한 사회에서 시장은 1920년대 베를린의 지하철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함경북도 청진 수남시장은 단속이 강해질수록 그만큼 상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청진에서는 올해 벌써 두 차례나 상인들의 집단항의사건을 겪은 뒤라 단속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시장관리원과 상인이 몸싸움을 할라치면 어느새 옆에서 장사하던 다른 상인들까지 가세하다보니 시장관리원들도 선볼리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 덕분에 단속할 때 늘 발생하던 몸싸움은 줄어들었고 대신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258호(2008.12.23), 5쪽. 이 자료의 북한 관련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차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변화 양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용한다.

은 항상적인 일탈과 통제를 둘러싼 분쟁 터가 되었다.<sup>33)</sup>

일상은 과거의 향수로서 기억(고난의 행군 기간 이전)과 현실의 고통으로서의 기억(고난의 행군 이후)이 결합되며 저항의 실천으로 전환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때까지는(1989년경) 아마 내 생각에는 북한이 잘살았잖아요. 생활이 괜찮았잖아요”라는 회상과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아서, 어휴, 우리 동네도 진짜 많이 죽었어요(1997년경)”라는 기억의 교차가 발생했다.<sup>34)</sup>

또한 일상의 공간은 시장을 중심으로 갈등과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을 바라보는 국가와 인민의 심각한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국가는 시장을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sup>35)</sup>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민은 시장을 “진짜 북한의 시장은 삶의 그냥 터전이예요.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sup>36)</sup>라고 회고한다.

기억과 공간은 시장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기억은 현실에서 시장의 생존공간과 직결되고 있다. 시장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전략과 인민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시장은 이중의

---

33) 최근 북한 당국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판정사업’에 따라 전국 각 공장, 기업소, 농장들마다 과업을 지시하고 과업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책임간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각 단위 간부들은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노동력을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부들과 노동자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의 북한소식』, 262호(2009.1.20), 2~3쪽.

34) B-02(협동농장원) 2009년 1월 20일 인터뷰 내용. 이하 논문의 탈북자 인터뷰 내용은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에서 진행한 “북한 일상생활세계의 아카이브 구축과 연구방법론 개발: 체제 변화 동학과 일상생활세계의 연계 모델” 연구를 위해 실시한 2009년 상반기 인터뷰 내용 중 이 글의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한 탈북자들의 요청에 의해 이름, 나이, 출신지 등은 표기하지 않고, 영문 기호와 직업만 공개한다.

35) 『오늘의 북한소식』, 278호(2009.5.12), 6쪽.

36) B-10(노동자) 2009년 1월 9일 인터뷰 내용.

공간이다. 즉, 국가와 인민의 격렬한 쟁투의 공간이며, 산출되는 이익을 획득하려는 다양한 연출망이 형성되고 공모와 협잡(挾雜), 착취와 도생(圖生), 연대와 저항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이와 연동해 작업장도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탈은 일상이 되고 있으며,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관료들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배급과 분배를 둘러싼 태업과 결근의 상시화, 분노의 실천으로서 기계파괴 행위, 작업장에서 생산방기의 일상화가 벌어지고 있다. 간부들도 ‘5분열도식’(5분만 열심히 일하고 다음부터는 대충하는 식) 사업방법이 팽배하다는 국가의 인식하에 지속적인 검열 작업의 대상이 되었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일상 대화는 “뭐 사는 생활전선, 진짜 생활전선 이야기죠. 어디때는 무스고라 싸더라, 요즘에 장마당에 나가니가 쌀값이 얼마 올랐다, 강냉이값이 얼마 내렸다, 뭐 이런 말 밖에 안해요” 등 생존과 시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37)</sup> 관료들의 행태도 국가물품을 시장에 내다파는 방식이 일상화의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sup>38)</sup>

일상은 국가·관료·인민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히 새롭게 등장하고 구조화되고 있는 시장을 통해 새로운 관계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장은 이제 서서히 시장으로 정향되고 있다. 작업장의 일탈도, 작업장에서의 위법과 태업도, 가족구조 변화(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

37) B-05(노동자) 2009년 1월 7일 인터뷰 내용.

38) 일례로 량강도 보천군 보안원 40여 명이 출당·철직·해임되었는데 이는 몇 년간에 걸쳐 보안서 정치부장의 아내가 주축이 되어 주민들에게서 거둔 파고철을 1kg당 600원에 판 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북한소식』, 273호(2009.4. 7), 7쪽.



상황도, 주거문화 변화(생존과 이익을 위한 매매 대상으로의 전환)도 시장이라는 공간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식은 시장공간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계적 관료체제에 익숙했던 관료들에게 생존 방식은 상위 관료에 대한 충성에서 일탈해 시장과의 친화성 및 관계망 구축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을 통한 이익 도모는 일상적 행위로 전환되고 있다. 부족경제에 의해 집행되지 못하는 국가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과 공모해야만 하고, 이 공모 과정이 발각되면 철직·해임·강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일상은 공간과 기억의 결합에 의해 요동치고 있다. 이것의 향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으나, 어느 순간 지배전략을 중단·변경시키고 관계망을 꼬이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북한의 기본적 운영방식에 끼어들어 과거의 전통을 정지시키는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불안한 일상의 요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4. 북한 관료의 일상생활세계 변화: 지배 공간의 변형과 기억의 실천

북한 관료들의 일상생활세계도 시장의 등장·확산과 함께 변화되고 있다. 관료들의 일차적 과업은 신분 유지 및 직위 상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업의 성공 수준에 따른 관료적 권한의 확대와 이에 연동된 이익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료주의 내의 효율성은 소비

자, 혁신, 창조성이 아니라 규정에 대한 엄격한 복종이다.<sup>39)</sup>

또한 관료집단은 각각 그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활동영역에 다른 이가 끼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며, 동시에 자신의 모든 책임을 던져버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다.<sup>40)</sup> 따라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많이 누리기를 원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은 최소화하려는 집단이다.

그러나 북한의 관료들에게도 ‘고난의 행군’은 심각한 위기 국면이었으며, 새로운 관료적 인식과 실천을 만드는 시공간이었다. 이 기간에 관료적 지위를 보존하고 이익을 신출하는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했고, 지배의 강압에 의해 사라지기도 했다. 지배에 맞선 저항과 시장을 통한 이익공모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고, 관료적 권한을 통해 인민을 약탈했고, 지배의 전략에 충실히 복종하며 새로운 관료적 권한을 확보했다. 기생하며 공모하는 거대한 몸체인 관료체제는 북한 사회 변화의 핵심적 척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관료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지배 공간을 어떻게 변형시켰고, 새롭게 구성된 기억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살펴본다.

## 1) 국가와 인민 사이의 관료: 신분불안과 신소·고백·비판

북한의 핵심적 관료집단을 제외한 중하위급 관료들은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 심각한 신분불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은 2008년 5월 간부학습자료 “당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

39) William P. Anderson, “Mises versus Weber on Bureaucracy and Sociological Method,”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Vol.18, no.1(Winter 2004), p.11.

40) Ludwig von Mises, *Socialism*(Indianapolis: Liberty Fund, 1981), p.183.

고수할 데 대하여”를 통해 간부들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비판지점은 “① 사업에 열정이 없이 일한다는 점, ② 국가재산을 제멋대로 낮내기 하거나 부정 처리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③ 지원물자를 보낸다면서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거둔다는 점, ④ 자기 단위 이익만 생각하며 국가의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경영관리를 한다는 점” 등이었다.<sup>41)</sup> 이런 비판과 함께 관료들에 대한 중앙 차원의 대대적인 검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그것은 ‘3대혁명판정사업’, ‘전기교차검열’,<sup>42)</sup> ‘비사그루빠 검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황해남도 장연군 놀산리 협동농장의 경우 3대혁명판정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돈주에게 돈을 빌려 쓰고, 농민들의 분배량을 줄여 농장원들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으며, 공장개선사업의 명목으로 노동자를 6개월간 파견 근무시켜 돈을 버는 일이 발생했다.<sup>43)</sup> 또한 전기교차검열사업을 통해 상당수의 간부들이 해임·철직·강등을 당했다.<sup>44)</sup>

---

41) 『오늘의 북한소식』, 256호(2008.12), 13~16쪽.

42) 이 사업은 “전기를 망탕 량비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사용하는 공장 책임자들, 그리고 특권으로 량비하는 개인세대들을 심문 재판할 수 있는 법적 특수권한을 부여”받은 도(시·군)당, 보안서, 검찰소, 재판소 등 4개 기관이 진행하고 있다. 『오늘의 북한소식』, 267호(2009.2.24), 2쪽.

43) 『오늘의 북한소식』, 262호(2009.1.20), 3쪽.

44) 예를 들면 평안남도 평성 전기부문 도 지령장과 배전부 감독원이 처형되었는데 이번에 처형된 사람들은 너물과 물자를 받고 군수공업용 전력을 일반 공장, 기업소에 보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국가에서 6만 7,000원에 공급하라고 했던 직산전력계를 일반 주민들에게 13만 2,000원씩 약 2배 비싸게 받은 혐의도 추가되었다. 『오늘의 북한소식』, 270호(2009.3.17), 5쪽.

<표 1> 2009년 간부 단속

월	지역	대상	단속 내용
(2008년) 12	전국 주요 도시	간부 전원	살림집 관련 단속: 살림집을 새로 짓거나 호화주택 처벌 - 량강도 혜산시: 간부 45명 해임 및 철직 - 함경북도 회령시: 시검찰소 검사 해임 기타 간부 노동자, 농민 신분으로 강등 - 평안남도 평성시: 21명 해임 및 당적 처벌 - 자강도 도당 근로비서 살림집 불법변경으로 해임 및 철직
1	함경북도	함경북도 농촌일군	군량미 미완자 처벌: 군량미 완수하지 못한 리당비서 9명 해임
2	평안북도	도보건부 산하 병원일군	위조 건강진단서 발급자 단속 -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으려고 허위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조사 결과 약 40여 건 확인, 실제 더 많을 것
	전국	전력 관련 간부	전력성 1~2차 도별 전기교차검열(단, 황해도와 평안북도 자체 검열) - 평남 평성: 도지령장 및 배전부 감독원 공개처형(2/24) - 함남 함흥: 공장, 기업소 지배인 7명 교화형 - 함남 홍남: 철제일용품공장 기사장 9년 6개월 교화형 등 처벌
3	량강도 보천	보안원	파고철 밀매매 건 - 현직 보안원 40명 대거 출당, 해임, 철직 - 주민들에게서 거둔 파고철을 1kg당 600원에 팔아 개인 착복한 혐의
	함경북도 회령	리당비서 농장일군	1. 농자재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유용한 사례 단속 2. 기타 알곡 유용 등 부정부패 검열
4	전국	시, 군당 책임비서	1. 백두산 건설이 늦어지는 데 따라 중앙당 책임 간부 해임 2. 백두산 건설 노동자 식사, 필수품 보장 못할 시 간부 처벌 경고
5	전국	전체 당원	1.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3년 전 비법행위까지 반성문 쓸 것” 지시 2. 상호감시 위해 군중신소일기장 강화

6	량강도	도당 간부	도 청년동맹1비서 도주 후 관련 간부들 처벌 - 도당 책임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근로비서, 보위부장 등 해임 및 철직(6/17)
8	국경연선 지역	전체 간부	중앙당 검열그루빠 - 국경연선지역의 간부들 비법행위 집중 단속 - 국가안전보위부 우수일꾼과 금성정치학교(간부학교) 학생들로 검열단 구성 - 평안북도 신의주 간부, 밀매매 비호 혐의로 60명 구속, 이 중 20명 최고형 예상
	전국	전체 당·정 일꾼	사상검토사업 - 강원도 비사검열 결과 간부 80여 명 구속, 20명 교화형, 일부 사형선고, 기타 해임, 가족 추방 등의 처벌

자료: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00호(2009.10.13), 12~13쪽.

부족경제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해임·강등·철직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원자재를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계획과 생산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야말로 ‘폭력적 자력갱생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지침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감내해야 하며 국가지침을 실행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는 역으로 관료들이 국가지침을 실행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 또는 노동자와 농민을 수탈하는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충돌 원인이 되고 있다.<sup>45)</sup> 이에 맞서 주민들은 신소를 통해 관료들을 고발한다. 신소접수, 당국조사, 처벌이 수시로 벌어지는 것이다. 일상에서 주민들이 전개할 수 있는 저항의 방법은 신소이다.

45) “함경북도 어랑천 도로공사에서 노동자들이 일꾼들과 싸우고 집단으로 파업…… 노동자들은 옥수수밥 한 그릇에다 국 한 그릇, 염장 무 몇 조각으로 끼니를 이으면서 일해온 반면, 현장 간부들은 도로 공사에 동원된 각 기업소가 지원한 돼지고기와 식량, 기타 필수품을 가로채 매일 고기에 술, 쌀밥을 먹어왔다.” 『오늘의 북한소식』, 296호(2009.9.15), 2쪽.

신소에 의한 조사 작업은 사상검토사업으로 확대된다. 주민의 문제 제기를 국가가 수용하면서 간부들을 통제·검열하는 것이다. 즉, ‘검열 그루빠’를 통해 간부들을 처벌하는 방식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통제·검열과 함께 북한 당국은 관료들에게 ‘고백’을 강요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원들 각자 자신의 위치와 본업에 따른 부정행위를 스스로 고발하는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했다.<sup>46)</sup> 이 반성문에는 “우리 당원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내용을 적시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당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라는 것이다. 이미 북한의 관료들은 과거부터 일상적으로 자기비판·호상비판을 전개해왔다. 즉, 비판과 고백의 일상화를 통한 중앙 차원의 관료 통제전략임과 동시에 주민의 불만을 관료 처벌을 통해 무마하는 전략인 것이다.

북한의 관료들은 국가의 각종 검열과 주민의 신소에 의해 항상적인 신분 불안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상적 비판과 비일상적 또는 계기적 고백을 강요받고 있다. 즉, 신소·고백·비판의 통제구조와 국가의 관료에 대한 독점적 임명권 장악구조는 관료에 대한 국가와 인민의 견제 구조로, 대중에 대한 지배와 관료의 통제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신분불안 상황의 지속, 검열과 비판의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관료들은 저항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망 구축에 착수할 것이다. 역으로 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이 확대되고 이에 맞서는 주민들의 직접적 저항과 다양한 고발이 확대된다면 새로운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에 착수할 것이다. 이렇듯 관료는 국가와 인민 사이에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수시로 정체성을 조정해야만 하는 ‘두 개의 얼굴’을

---

46) 『오늘의 북한소식』, 285호(2009.6.30), 7~8쪽.

가진 집단이다.

## 2) 국가와 시장 사이의 관료: 통제와 부패의 결합 현상

북한의 관료들은 세대별 차이가 있지만 장기간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과 삶의 방식에 익숙한 존재들이며, 관료로서의 진입을 위한 모든 시험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당원들이라고 특종이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보다 일을 더 잘해서 당에 대한 당원이 된 것이지, 당원이란 표준이 어떤 사람은 너물로도 된 사람도 있겠지만 과업수행에서 초과수행하고 남보다 투신하고 남보다 뛰어나게 월등하면 일 잘하면 당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저 사람이 당원인데 머리 수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옳고 저 사람들이 당원인데 우러러보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고”라는 일반주민의 시각과 같이, 모든 당원이 주민들로부터 적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두려운 존재 또는 복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도 아니다.<sup>47)</sup> 다른 측면에서 관료들은 주민의 인정을 받는 존재이기도 했다.

관료들은 기존 체제의 오랜 습속을 기억과 실천으로 담지하고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현실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며 변화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국가지침에 의한 통제의 주체이며 동시에 생존과 이익을 위한 부패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 관료들은 타성과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존 규범과 새로운 변화 사이에 갈등하는 존재이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sup>48)</sup>

---

47) B-03(노동자) 2009년 1월 29일 인터뷰 내용.

48) 『오늘의 북한소식』, 271호(2009.3.24), 16~17쪽.

“여보 생각해보시오. 당신이 지배인이지만 집안에 보텐 게 뭐 있소. 내가 장사 길에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입에 풀칠도 못할 거야.”

“그런 말 마오. 내가 지배인이니까 당신도 편안히 장사할 수 있지.”

“하긴 그건 맞는 말이오. 세대주가 아닌가. 기대는 데가 있으니 내가 편안히 장사하지. 그런데 지금 대의원이 됐으니 우리가 더 큰 벌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 그저 입만 벌리면 장사밖에 모르는가.”

“아니요. 한번 황해도에 가서 김 장사를 해볼 생각이오. 대의원증만 내밀면 무사통과인데.”

“그런 말마라. 대의원이라고 해도 2호 초소(평양시 들어오는 평양호 위사령부 초소)는 통할 수 없소.”

“아이 황해도 가는 데 무슨 상관이나. 당신이 일요일에 나랑 같이 황해도에 한 번 가보자요. 승용차는 내가 마련하겠으니. 한 당만 하면 기름 값이여 이것저것 다 떼고 50만 원은 넉넉히 떨어지오. 대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아니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러나.”

시장을 통한 생계유지와 이익을 획득하려고 새로운 세계에 접속한 부인과 기존 관료체제 속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남편의 대화는 현재 북한 관료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적 습속(habitus)과 시장적 행위가 충돌하는 모습, 즉 통제의 주체이면서 부패의 주체임도 동시에 보여준다.

시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제력 강화 조치는 관료적



<표 2> 2009년 시장 단속 일지

월	시행 내용	결과
1	전국 종합시장 폐지 및 농민시장 개편 6개월 뒤로 연기	-
3	최고인민회의대의원대회(3/8) 앞두고, 엄격한 이동 통제	장사 위축
4	함북 청진, 시장에서 농산물 이외 상품 판매 금지 함남 함흥, 시장 단속과 판매율 저조로 매대 장사꾼 40% 감소 중국 환율 올라 물가(특히 수입공업품) 상승	금지된 물품을 팔거나 매대비를 내지 않으려고, 골목길 장사, 방문판매, 메뚜기 장사로 전환하는 장사꾼 증가
5	시장에서 음식 판매 금지 전국 시장 관리 방안 관련 재강연 - 차판 장사, 도매장사, 기업소들의 불법장사 - 젊은 여성(40세 미만) 장사 - 평성이 전국 도매시장이 되고 있는 현상 - 시장에서 판매소를 별도 운영하는 현상 - 골목길 장사, 메뚜기 장사 등 이상 행위 엄중 경고	-
6	평남 평성 시장 폐쇄 결정, 전국 도매시장 역할을 한다는 이유	구역별 소규모 장마당 운영
8	자강도 강계 장삿집 부피가 크면 단속(8/2부터) 시장 “장사 집 부피를 줄여서 메고 다닐 데 대해” 강연	상인들 냉담한 분위기

자료: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00호(2009.10.13), 11쪽.

권한의 확대로 이어진다. 주민에 대한 강화된 통제권을 행사하는 관료들은 또 다른 부패의 연계망을 구축한다. 통제의 강화가 관료적 권한을 강화하고, 강화된 관료적 권한을 통해 부패를 확산하는 방식이다.<sup>49)</sup>

49)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관료들은 일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출근한 것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돈을 얼마 내겠으니까 나 한 달 동안에 어디 장사 좀 갔다 오겠다. 날 좀 봐 달라. 그러면 너 한 달에 돈 얼마 내겠다. 그러면 얼마 내겠다 하면

예를 들면 지난 3월 8일 대의원선거 이후 북한 당국은 전국적으로 시장 단속을 강화하며 40세 미만 여성들의 장사를 금지하고, 거래 품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주민들의 생계공간이 협소화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관료들과의 거래를 통해 시장 활동을 지속하려는 새로운 연결 방식이 도입될 것이다. 이런 능력도 없는 주민들은 시장 밖의 공간에서 ‘방문장사’, ‘골목장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연명해갈 것이다. 이것은 관료적 권한과 시장과의 새로운 연결 방식의 전환과 시장 밖의 공간을 시장화하는 현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또한 관료적 권한을 통한 이익확보의 기억들은 시장 친화적 관료들을 확산하고 있다. 남편이 간부인 경우 부인이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여성인 경우는 아예 사무직을 그만두고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장사를 안 해도 하여튼 와이프들이 장사를 하는 거죠 소장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장사를 해서 먹고 살고, 괜찮았거든요, 소장네 생활은 의사 같은 경우는 여자거든요? 마지막에는 안 했어요. 의사, 장사했어요.<sup>50)</sup>

이것은 새로운 연줄망의 구성, 새로운 공간의 창출을 의미한다. 자신의 직책과 분야에 따라 부여되는 관료적 권한은 작업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 많은 관료들은 국가물자를 빼돌려 시장에 판매하고 이익을 획득한다.<sup>51)</sup> 또한 관료적 권한을 통해 주민들에게

---

직장장은 이게 우리 직장에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좋다. 내가 출석률을 니가 온 걸로 하겠으니까 니 돈을 어느 정도 내라.” B-01 (교원) 2008년 7월 29일 인터뷰 내용.

50) B-02(협동농장원) 2009년 1월 20일 인터뷰 내용.

51) 회령시 도시건설대 대장은 건설자재를 시장에 팔아 그 일부를 유용했으며,

각종 물자와 화폐를 받아 착복하거나 상부에 뇌물로 활용한다.<sup>52)</sup>

그리고 북한 사회의 통제구조의 침병이라 할 수 있는 각종 공안기구 간부들의 행위도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즉, 통제 권한의 확대를 통해 지배전략을 관철하려고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실제 일상에서는 부패의 확산과 시장 친화적 관계망 구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위부원, 보안원, 국경경비대, 노동적위대원 등 현장에서 감시와 통제를 실행하는 관료들이 마약 밀매에 동참하고, 국경 불법도장을 방조하고, 국가물품 유출을 공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료적 권한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거나 시장과 공모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이 통제와 부패의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통제전략은 일상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으며, 공권력이 부패와 결합해 부패를 확산하는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통제 강화가 부패를 확산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이 부패의 연결망이 확산되어 시장 친화적 관료들이 확산된다면, 국가 차원의 시장 및 관료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

상업관리소 소장은 도에서 내려온 지원물자를 시의 승인 없이 시장에 팔아 상업관리소 물류창고 확장 건설에 사용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어린이 의류와 식료품 지원물자의 일부를 시장 간부에게 뇌물로 바쳤다. 이런 행위들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정황이 적발되어 많은 관료들이 해임·강등·철직되고 있다. 『오늘의 북한소식』, 273호(2009.4.7), 3쪽.

- 52)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온정동 사무소 여맹은 조직생활이 불성실한 여맹원들에게 돈을 받아내 옷을 사 입는 일이 벌어졌다. 『오늘의 북한소식』, 283호(2009.6.16), 11쪽. 함경북도 청진시 116기동대 울림회사 사장은 몇 년에 걸쳐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마약 거래에도 개입했다고 한다. 『오늘의 북한소식』, 285호(2009.6.30), 13쪽.

‘생산 없는 사회’에서 시장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국가물품과 중국을 통한 수입, 그리고 소규모 수공업과 농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핵심적으로 국가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관료들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료들도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관료적 권한을 유지하면서 적정 수준의 시장 유지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즉, 급격한 변화를 통한 시장 진입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 공간 내부의 균열지점으로서 시장이 지배 공간을 변화하는 변혁으로 전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 3) 관료와 관료 사이의 관료: 양극화, 책임 회피와 보수성, 정보왜곡

과거 북한 사회는 관직 위계에 따라 차등적인 배급과 급여, 복지체계에 따라 작동했다. 그러나 이런 복지체계가 붕괴되면서 상위 직책과 하위 직책의 양극화 현상과 선호하는 직종이 변화되고 있다.

함경남도 단천시는 인구가 40여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곳 4개 당위원회에는 시당, 건설연합당, 광업당, 철도당 등 4개 당위원회의 책임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부터 간부과, 조직과, 선전부 등 600여명의 간부들이 있다. 이들과 함께 보안원, 보위부원 등은 배급을 비롯해 먹고사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요즘은 간부들만 살아남는 시절”이라고 비난한다.<sup>53)</sup>

이 외의 산하 지역, 부문 조직의 경우는 4개 당위원회 소속 관료들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당, 지역시당 차원까지는 국가 차원의 장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아래

---

53) 『오늘의 북한소식』, 283호(2009.6.16), 4쪽.

로 내려가면 책임은 커지고 국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적인 신분 불안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패에 대한 유혹이 더욱 커질 것이다.

“창호야, 지금까지 경공업지배인들이 얼마나 해임·철직당하고, 지방에 추방됐는지 알고 있느냐. 그들이 충실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상급 당이 무리하게 요구하고, 공장 살리기 위해서 부득불 좀 나섰다가 희생양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다 행정일꾼들의 운명이 아니냐”라고 한 말씀 덧붙였다. 줄곧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도 드디어 입을 여셨다. “어머니 말 잘 새겨들어라. 어떤 경우라도 나서지 말아라. 무보수로동까지는 감수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sup>54)</sup>

최근 북한에서 경공업 지배인(행정일꾼)으로 임명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항상적인 해임의 위협과 막중한 과업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 회피와 보수성이 확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상적으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수령’에 대한 과실을 진심으로 사죄하되, 실무적인 일은 상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급기관에 올려 썩야내 책임이 아니라고 상급기관에 책임을 돌리라”하는 것이 관행이다.<sup>55)</sup>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급적 관료적 권한을 통해 즉각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직책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업관리소, 외화별이사업소, 군수공장, 무역회사 등을 들 수 있다.<sup>56)</sup>

54) 『오늘의 북한소식』, 268호(2009.3.3), 17쪽.

55) 『오늘의 북한소식』, 273호(2009.4.7), 16쪽.

56) “그때 당시 상업관리소는 대학이나 좀 간부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

그리고 정보의 왜곡을 통해 관직의 유지 및 이익을 획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당중앙위원회에서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국가 기밀을 철저히 엄수할 데 대한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는 당과 국가 및 군대 주요 일꾼들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일체의 모든 부정행위들을 강력히 뿌리 뽑겠다는 결심의 일환에서 나온 방침이라고 한다.<sup>57)</sup> 이러한 현상은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보들이 유출되는 현실을 말해준다. 국가정보가 관료적 계선을 따라 관료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출·변경·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의 확산은 궁극적으로 국가 신호와 시장 신호의 충돌을 의미한다. 어느 순간 정부지침이 시장에 의해 변경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관료들의 일상생활세계는 양극화 현상의 확대, 책임 회피와 보수성의 확대, 정보왜곡을 통한 관료적 권한의 자의적 활용 가능성의 확대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해 관료들의 향후 행보가 관료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확산되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것인지, 정부 정책에 대한 수동적 수용성이 확대되면서 관료체제의 안정성은 유지하되 경제 분야의 악순환 구조를 더욱 심화할 것인지, 정보의 지속적인 왜곡으로 인해 정부 장악력이 약화될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관료들은 국가와 인민, 국가와 시장, 관료와 관료 사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생존전략을 변경해

---

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먹을거리, 그 다음에 장, 사탕 이런 식료품 담당, 공업품 담당, 이런 걸 맡아가지고 상점 판매원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황해제철소의 외화벌이는 사업소가 또 따로 있어요. 들어가기가 힘든 데예요. 한마디로 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B-03(노동자) 2009년 1월 29일 인터뷰 내용.

57) 『오늘의 북한소식』, 285호(2009.6.30), 7쪽.

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가 지배행정의 중추집단이며, 지배집단과 북한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집단이며, 관료체제 내의 관료적 경쟁을 해야 하는 집단이 관료이다. 따라서 북한 관료들의 일상을 추적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변화 동학을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북한의 과도기적 성격과 위기의 국면을 고려할 때 관료들의 일상을 추적·분석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窓)’을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 5. 나오며: 관료 일상과 체제전환의 연관성

이제 관료의 일상생활세계 분석을 통해 체제변화의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체제이행’이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 전체주의에서 민주주의 제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체제전환’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제도적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연결망 구조나 문화, 지배적 가치와 신념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행’에 비해 체제변화의 시간적 간극이 넓게 설정되고 비물질적인 변화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58)</sup>

따라서 한 사회가 변화되는 방향과 함께 제도와 문화, 인식체제와

---

58) Frank Bonker, Klaus Miller and Andreas Pickel,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to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Context and Agenda,”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and the Social Science: Cross-Disciplinary Approaches*(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최완규·이무철,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과 국제협력: 평가와 과제,” 『현대북한연구』, 제12권 1호(2009), 10쪽에서 재인용.

관계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체제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환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을까? 르페브르는 “계기는 일상으로부터 일상 안에서 탄생한다”라고 주장했다.<sup>59)</sup> 북한 사회에서 체제전환의 계기는 비일상적인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선명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의 시간과 공간에 축적된 일상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은 국가와 인민의 관계를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시켰다. 따라서 북한의 향후 변화 과정을 읽을 수 있는 방법도 바로 계기로서의 일상과 일상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적 관계는 수령과 인민 간에 발생하는 제도적 차원의 증여(배급과 복지체계)와 직접적 각종 증여(선물, 명예, 지위, 하사품 등)에 의해 구성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난의 행군’ 기간을 계기로 시작된 증여체계의 붕괴와 직접적 각종 증여 규모 축소는 사회적 관계의 근본적 또는 부분적 변화를 함축한다. 즉, 기존의 연대와 의무 관계가 붕괴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60)</sup>

예를 들면 북한과 같이 독자적 논리를 갖고 움직이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는 대체로 상징자본이 경제자본보다 유용했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명예 또는 지위를 이용해 재화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그러나 시장이 확산되면서 상징자본의 가치는 하락하고 경제자본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상징자본과

59) Henri Lefebvre,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I. Fondement d'une sociologie de la quotidienne*(L'Acche, 1961), p.355.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 『전남사학』, 제25집(2005), 310쪽에서 재인용.

60) 의무적이고 이해관계가 개입된 증여방식인 선물은 사회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방식의 하나이며, 이 사회적 관계란 선물교환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을 개인이나 무리들 사이에 선물을 통해 의무가 창조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그레이버,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교환과 가치, 사회의 재구성』, 서정은 옮김(서울: 그린비, 2009), 81~82쪽.



경제자본은 충돌하고 경쟁하는 과정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모스(Marcel Mauss)가 소유형태 자체보다는 재화에 대한 접근과 분배의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sup>61)</sup> 북한 사회에서 재화에 대한 접근을 둘러싸고 시장의 규모와 작동방식에 대해 ‘국가·관료 대 인민’ 또는 ‘국가 대 관료·인민’ 간의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배를 둘러싸고 관료 내부의 충돌과 인민부양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포기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재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분배의 문제에 있어 국가의 통제전략과 관료·인민의 욕망이 현실공간에서 쟁투를 전개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증여와 답례의 ‘총체적 호혜관계’에서 ‘일방적 호혜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방적 호혜관계는 오직 한편만이 상대방의 자원에 대한 무제한적인 요구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sup>62)</sup> 북한의 지배 권력은 인민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자력갱생 및 국가시책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계의 요구로는 인민의 국가에 대한 연대와 의무를 생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일상적 행위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미래는 북한의 주민과 관료들이 지배 공간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전술과 책략에 의해 어떻게 저항 공간이 구성될 것인지를 추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의 관료와 주민들은 억압된 일상의 시간과 공간을 탈출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과 연결망을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장은 생산자들의 생산물이 유통·판매되는 교환의 공간이다. 이 교환의 매개는 화폐이다.<sup>63)</sup> 과거 사회적 관계의 상징인 ‘수령’은 이제 새로운 상징인 ‘화

---

61) 위의 책, 346쪽.

62) 위의 책, 471쪽.

폐’와 공간에서 쟁투를 벌이고 있다. 짐멜(Georg Simmel)의 정의처럼, 화폐는 ‘도구적이고 익명적인 상호작용 증대, 개인적 자유 확산, 객관적 문화 확산, 합리적 지식 발전, 삶의 유동성 증가’를 유발해 인민들의 민주적 삶의 과정을 자극하고 촉진할 수 있다.<sup>64)</sup>

현재 북한 사회는 관료적 위계질서 망과 시장 교환의 수평적 유통망의 얽히고설킨 새로운 연결망이 구성되고 있으며, 국가를 통한 전일적 분배체제는 시장을 통한 다층적 분배체제와 연동해 작동하고 있으며, 국유화된 생산구조는 국가능력 내의 한정된 생산구조 및 다양한 소생산업자들의 생산구조와 연동해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사회에 새로운 공간구조가 일정 수준 구성되고 있으며, 이 공간구조는 관료와 인민의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갱신되어 지배전략을 가로지르고 우회하는 술수와 책략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제 아무리 국가가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축적된 기억은 다시 일상에서 재현되어 지배전략을 우회할 것이며, 제 아무리 시장을 국가 통제 영역 안에 장악하려고 시도해도 주변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교환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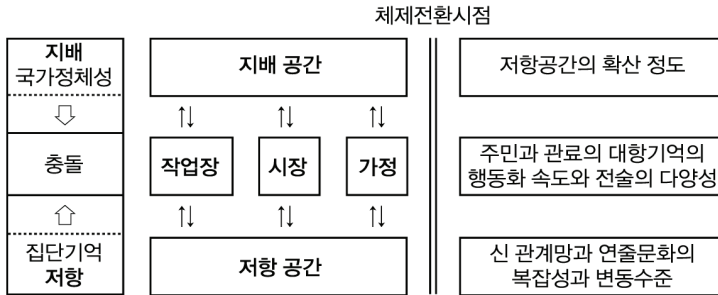
문제는 국가와 인민의 중간자 관료들이다. 국가와 시장 또는 국가와 인민 사이에서 생존과 이익을 위해 정체성을 수시로 조정해야 하는 불안한 일상, 국가의 무책임한 지침의 완수와 노동자들의 일탈을

---

63) “돈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필연적인 대가로서 일정하고 구체적인 가치를 받게 됨으로써 돈은 동일한 경제권의 구성원들을 매우 강력하게 연결시킨다. 돈은 직접적으로 소비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실제로 소비하고자 하는 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연결시킨다. …… 많은 인간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창출한 것은 궁극적으로 돈이다.”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옮김(서울: 새물결, 2005), 15~17쪽.

64) 차문석, “20세기 사회주의에서 화폐와 수령: ‘수령화폐’의 등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1호(2008), 110~111쪽.

<그림 1> 북한 사회 공간-지역-일상의 변화와 체제전환 메커니즘



통제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장 공간, 비공식적 연줄망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는 부패행위의 실천과 이것을 적발하려는 중앙과의 끊임없는 긴장관계, 과거의 명예로운 시절과 현실의 고통이 혼합된 지역 이야말로 현재 북한 관료들의 일상생활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인민의 전면적인 봉기 또는 저항이 아니라면, 북한 관료들의 선택은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면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의 유지 또는 창출일 것이다. 북한 관료들이 현 지배 공간을 저항을 통해 대안 공간으로 전환하는 실천을 감행하기에는 획득될 이익보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된다.<sup>65)</sup>

65) 북한의 경우 수십 년간에 걸친 주체경제의 실패, 천연자원의 부재, 공산권의 몰락 등으로 극단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은 북한 엘리트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물질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을 완전히 차단했다. 고작 국제거래에서 차익을 남겨 외환을 보유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분명 북한 엘리트 역시 기회주의적 유인에 둔감하지 않지만 그 유인의 양이 위험한 도박을 감행할 만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 북한 엘리트는 바로 북한의 유일한 비교 우위인 과도하게 발달한 국가를 이용해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한병진, “북한 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15권

따라서 관료의 일상변화와 체제전환의 연관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배 공간에서 저항 공간의 확산 정도, 둘째, 국가 정체성에 복종하는 행위에서 새로운 기억의 축적에 의한 행동화의 속도와 전술적 다양성, 셋째, 일상생활세계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관계망과 연줄문화의 복잡성과 변동 수준이다.

어떤 형태이든 북한의 관료들은 체제전환과 전환 이후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북한의 체제전환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난제이다. 따라서 북한 연구와 연구자들의 몫은 관료들의 심성세계와 관계문화의 변화, 실천행위와 양태 변화 등에 대한 과학적 추적이며,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두텁게 읽기’라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지배 공간에서 ‘세균 같은 실천’으로 이 장소를 침식하는 관료들의 일상적 행위를 밝히는 것이다.

■ 접수: 10월 25일 / ■ 채택: 11월 23일

## 참고문헌

- 그레이버, 데이비드,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교환과 가치, 사회의 재구성』, 서정은 옮김(서울: 그린비, 2009).
- 르페브르, 앙리,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서울: 기파랑, 2005).
- 에덴서, 팀,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정체성』, 박성일 옮김(서울: 이후, 2009).
-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 『전남사학』, 제25집(2005), 283~317쪽.
- \_\_\_\_\_, “푸코와 세르토: 권력과 신비,” 『계명사학』, 16권(2005), 113~140쪽.
- \_\_\_\_\_,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역사 이론적 ‘전유’의 모색,” 『역사와 경계』, 58권(2006), 293~325쪽.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서울: 휴머니스트, 2005).
- 짐멜,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옮김(서울: 새물결, 2005).
- 차문석, “20세기 사회주의에서 화폐와 수령: ‘수령화폐’의 등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1호(2008), 93~113쪽.
- 최원규·이무철,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과 국제협력: 평가와 과제,” 『현대북한 연구』, 제12권 1호(2009), 7~50쪽.
- 최호근,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제85집(2003), 159~189쪽.
- 푸코, 미셸, 『감시와 처벌』(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4).
- 한병진, “북한 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15권 1호(2009), 119~141쪽.
- 『로동신문』, 2008년 9월 5일자.
-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256, 258, 262, 267~268, 270~271, 273, 278, 283, 285, 296, 300호.
- 탈북자 인터뷰 B-01(교원, 2009.1.20)
- 탈북자 인터뷰 B-02(협동농장원, 2009.1.20)
- 탈북자 인터뷰 B-03(노동자, 2009.1.29)
- 탈북자 인터뷰 B-05(노동자, 2009.1.7)
- 탈북자 인터뷰 B-10(노동자, 2009.1.9)

- Anderson, P. William, "Mises versus Weber on Bureaucracy and Sociological Method,"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Vol.18, No.1(Winter 2004), pp.1~29.
- Bonker, Frank, Klaus Miller and Andreas Pickel,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to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Context and Agenda,"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and the Social Science: Cross-Disciplinary Approaches*(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 de Certeau, Michel,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Harrison, P., "Making sense: embodiment and the sensibilities of the everyda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8(2000), pp.497~517.
- Jeckins, R., *National Identity*(London: Routledge, 1996).
- Lefebvre, Henri,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I. Fondement d'une sociologie de la quotidienne*(L'Aeche, 1961).
- \_\_\_\_\_, *De l'État-VI: Les contradictions de l'État moderne, La dialectique de l'état* (UGÉ, 1978).
- \_\_\_\_\_, *La production de l'espace*(Anthropos, 4e ed., 2000).
- Levy, Daniel and Natan Sznajder, "Memory Unbound: The Holocaust and the Formation of Cosmopolitan Memor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5(1, 2002), pp.87~106.
- Linstroth, J. P., "History, Traditional, and Memory among the Basques," *History and Anthropology*, Vol.13(2002).
- Mises, Ludwig von, *Socialism*(Indianapolis: Liberty Fund, 1981).
- Nora, Pierre,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emoire," *Representation*, 26(Spring 1989), pp.7~24.
- Portelli, A., *The Death of Luigi Trasyulli and Other Stories: Form and Meaning in Oral History*(NY: State University Press of New York, 1991).
- Steege, Paul, Andrew Stuart Bergerson, Maureen Healy and Pamela E. Sett,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A Second Chapter,"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80(June 2008), pp.358~378.
- Swett, E. Pamela, "Political Networks, Rail Network: Public Transportation and Neighbourhood Radicalism in Weimar Berlin," in Ralf Roth and Marie-Noëlle

Polino(eds.), *The City and the Railway in Europe*(Aldershot, 2003).

Weber, Max,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eds.), *Economy and Society*(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 Everyday Life of Bureaucrats and System Transformation in North Korea

—A variation of ‘ruling space’ and practice of memory

Kim, Jong Wook(Dongguk University)

The study sees the memories and the process of practicing memories of North Korea’s bureaucrats experienced in ‘the march of ordeal’ and has been deployed the collision process between ‘ruling space’ and ‘resistant space’. To do this, the three aspects of ‘memory - space - everyday life’ have been studied in a theoretical approach. And to what extent the practice of memory and variant of its space of North Korea’s bureaucrats influenced on the North Korea society has been analyzed.

What North Korea’s bureaucrats and their conduct have to do with system transformation was also tracked. As analyzing the system change of the North Korea society, microscopic change of everyday life must be simultaneously deployed as important as macroscopic change. Thus the tendency of the system transformation and its specificity can be captured in the linkage of macro- and microscopic aspects.



Three interrelated aspects between everyday life change of North Korea's bureaucrats and system transformation are, 1) level of proliferation of resistant space in the ruling space, 2) speed of activation and tactical diversity by the accumulation of new memory from the attitude of obedience to his country in the past, 3) level of complexity and change in the newly formed network of relationships and cultural ties in everyday life.

Keywords: Everyday life, Memory, Space, Bureaucrats, System transformation